

## 19세기 중남미 낭만주의 문학에 나타난 문명과 야만

김 중

(서울대 강사, 중남미문학)

산업의 발달로 도시가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전환이 되고 자본가와 노동자가 탄생하였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주었으며, 이러한 충격에 대한 새로운 은신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마침내 급변하는 현실을 부정하고 인간이 지닌 자연적인 정서를 존중하는 새로운 사상이 대두하였고, 그 사상은 많은 이론가나 작가들의 관심 속에서 새로운 문학, 낭만주의를 낳게 되었다.

18세기 유럽의 이성 중심적사고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낭만주의는 자기 중심적사고를 기반으로 주관성, 독창성, 자발성을 강조하며 인간이 지닌 자연적인 정서를 중요시하였고 자유로운 창조 정신을 기초로 독창적인 그 무엇을 찾으려 하였다. 이러한 경향의 낭만주의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희석되어 라틴아메리카에 유입되었다. 정치적으로 무정부시대인 관계로 사회적, 정치적 혼란기였던 라틴 아메리카에서 빠르게 확산된 사고는 미학적·형식적 질서에 대한 고려보다 독창성과 국민성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낭만주의는 중남미 작가들에게

고유의 문학을 소유하지 않았음을 인식하게 하였고, 자신들 고유의 민족 문화를 창조하게 하였다.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의 지리적인 상황은 낭만주의 문학에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자연적 상황이 가져다주는 텅빈 공간들은 인간의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기도 하였지만, 광활한 정경과 끝없는 강과 산은 작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주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sup>1)</sup>

호세 마르몰의 『아말리아』에서 등장 인물들이 폭압적인 독재자에 의해 붙잡혀 있으면서도 독재자의 포악성 보다 강과 팜파스라는 거대한 자연 공간에 더 많은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라 벨라파강 유역의 작가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지리적 공간과 다양한 인종 그리고 문화적 공백 속에서 당황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는 문제와 직면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방 통제능력이 결여되고 최초의 자유주의 정부의 실패 후 혼란과 내전의 시대가 도래하여 사회적·정치적 문제 또한 심각하였다.

에스테반 에체베리아 Esteban Echeverría의 생애와 저서들은 독립 직후 지식인들이 봉착했던 난관과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1805년에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출생한 그는 1825년 빠리의 소르본느 대학에서 수학하며 몽테스키외, 파스칼, 샤토브리앙 같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낭만주의·계몽주의·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1830년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돌아와 반정부 정치활동에 참여하여 망명길에 올라 고국을 밟지 못하고 망명지인 몬테비데오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문학 이론은 사후에 출판된 『가상작품에서 내용과 형식』 *Fondo y forma en las obras de imaginación*이라는 수필에 잘 나타나 있듯 ‘도덕 관념은 보편적인 것이지만 풍토 및 관습 그리고 정부 형태가 각 국가의 독자성에 기여하고, 고전이라는 유산이 없는 중남미에서 시는 열대 식물과 같은 다양성과 활력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 활동에 전념하였던 관계로 에체베리아의 문학 작품은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낭만주의 문학의 한

1) Luordes Franco, *Literatura Hispanoamericana*, Noriega Editores, UNAM, 1995, pp. 57-63.

단면을 대표하는 장편 서술시 『포로』 *La cautiva*와 사후에 출간된 단편 『도살장』 *El matadero*을 들 수 있다.

『포로』는 19세기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인물들 중 하나로 인디오들에게 잡혀 족장의 정부가 된 백인 여자가 인디오 캠프로부터의 탈출과 새로운 문명에 도달하고자하는 의지를 다룬 관념론적 낭만주의 작품이다. 작품에서 연인들은 결국 자연에서 벗어나 산업화된 유럽을 추구하기 보다는 주어진 아르헨티나의 현실 상황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록 팜파의 고독이 당시 유럽 낭만주의 고유의 고상한 용어들로 환기되긴 하지만, 주변의 자연적 상황은 그 아름다움을 완전히 왜곡하는 두려움과 공포의 요소들(예를 들어, 불, 바람, 폭풍우 같은 대자연의 무자비한 힘)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

반면 『도살장』에서는 사실주의적으로 인물들을 충실히 그려내고자 하는 풍속주의 문학을 모델로 삼고 있으며, 묘사를 넘어서서 자신의 풍속주의를 강력하게 사회를 비판하는 도구로 전환시키기도 한다. 자유주의자였던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사순절 기간 동안의 무질서를 배경으로 교회와 로사스 정권과의 유착을 고발하고 있다. ‘도살장’은 로사스 정권하의 아르헨티나를 의미하며, 그 안에 존재하는 백정들과 흑인들 그리고 몰라또들은 무식하고 잔인한 자연의 속성을 대변한다. 에체베리아는 흑인과 몰라또들에 대한 그의 견해를 감추지 않고 있으며, 어른과 아이, 동물들에게 난무하는 폭력을 통해 나라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폭력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작가는 이러한 폭력, 잔인성, 위선 등이 현실적으로 지배적인 힘이기는 하지만 유일하고 절대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고집 세고 성미가 고약하여 다루기 힘든 거만한 황소로 비유하여 원시적인 방식으로 처형한다. 이렇게 작가는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기도 하고 강렬한 효과를 얻기 위해 상징주의에도 호소를 하고 있다. 『포로』와 마찬가지로 『도살장』에서도 폭력의 힘 앞에서 지식의 저항이 무능함을 반영하고 있다. 독자는 자신의 분노 때문에 죽은 한 젊은이와 에체베리아와의 세대간에 존재하는 대응관계 앞에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작품에서 자연은 정력적이고 역동적인 반면 문명은 나약한 여성으로 묘사되는 자연과 문명의 불균형적 관계를 인식할수 있다.<sup>2)</sup>

아메리카에 만연하는 야만적 제도를 고발한 다른 작가로 도밍고 사르미엔토를 들수 있다. 그는 지주계층 출신의 에체베리아와는 달리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대통령에 당선되어 1874년 퇴임할 때까지 내전과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역의 교육개혁을 위해 학교를 건립하고, 이민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사르미엔토에게 문명을 안겨준 작품은 『문명과 야만, 후안 화꾼도 끼로가의 생애, 물리적 측면, 아르헨티나 공화국의 관습과 습관』 *Civilización y barbarie. Vida de Juan Facundo Quiroga, y aspecto físico, costumbres y hábitos de la República Argentina*(1845)이다. 이 수필의 구조는 토그빌르 Tocqueville의 『미국의 민주주의에 관하여』 *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에 많은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이데올로기는 몽테스키외와 헤르더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사르미엔토는 제1판의 서문에서 자신이 일대기를 집필하고 있는 ‘지방 수령인 화꾼도 끼로가와 화꾼도를 암살하려 하는 로사스, 그리고 국가가 처한 상황의 특정 측면들을 형상화하고자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화꾼도는 시골 출신으로 대담하고 용감한 사람이고, 그의 후임자 로사스는 마키아벨리와 같은 지혜를 동원해서 서서히 독재를 조직화해가는 제도적인 인물이다. 따라서 이 수필은 로사스체제에서 야만이 제도화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로사스라는 독특한 인물을 분석하는 자료이기도 하며, 동시에 그에 대항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로사스가 폭력을 제도화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화꾼도는 자연적인 본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작가는 모든 사물을 인간과 자연, 정복자와 원주민, 도시와 농촌, 문명과 야만, 선과 악 사이의 갈등의 견지에서 바라보았다. 그에게 이상

2) Jean Franco, *Historia de la Literatura Hispanoamericana*, Editorial Ariel, Barcelona, 1981, pp. 68-87.

적인 삶이란 아르헨티나에서 볼 수 있는 자연적인 교역의 강과 문명이 침투하지 못하는 팜파스의 대립적인 대자원이 상반된 관계 속에서 문명과 문화를 낳은 교역적인 삶을 의미한다.

작가는 작품에서 팜파스의 인디오들을 문명 사회밖에 존재하는 야만의 상징으로 보았고, 문명은 사회성, 법의 지배, 사유 재산의 불가침 등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야만은 사회성의 부정이며, gaucho는 팜파의 고독 속에서 고립되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하여 존재하는 비문명인이다. 작품에서 화꾼도는 이러한 gaucho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교육을 거부하고 반스페인 투쟁에 참여하는 등 모든 미덕에 대한 부정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그의 이러한 모든 행적은 폭력을 제도화하는 로사스의 행적과 비교되어 나타나지만, 화꾼도의 파괴는 본능적인데 비해 로사스는 체계적이며 의식적이다.

작품에 나타나는 화꾼도나 로사스 같은 인물들은 분명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물론 화꾼도 자체가 이상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중남미 낭만주의는 유럽의 낭만주의와 차별성을 갖는다. 작가 역시 도시 문명으로부터 도피하지만 자연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분명 이 수필은 갈등의 역학에 의해 진행되고 서술의 현재성에 기여하는 역사적 현재 시제가 자주 사용된다. 사르미엔토는 19세기 자유주의 진보적 지식인의 전형으로 유럽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조국의 발전을 유럽과 미국의 발전과 관련하여 바라보았다.

아르헨티나 작가로 에체베리아, 사르미엔토에 이어 자연과 문명의 테마를 다룬 낭만주의 작가는 호세 마르몰이다. 이 작가는 로사스의 집권 시기에 잠시 투옥생활을 하고 몬테비데오로 망명하여 소설 『아말리아』 *Amalia*(1851)를 집필하였다. 그는 바이런의 영향을 받아 시에서 소설, 희곡에 이르기까지 전형적인 낭만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아말리아』는 사회적 낭만주의 소설로 로사스 정권의 그로테스크하고 부조리한 현실 속에 위치한 낭만적인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도살장』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지식인의 편견과 이상을 보여주며 로사스정권의 잔혹성과 형식

적이고 상투적인 불행한 운명의 희생자인 연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소설은 선의 힘과 악의 힘을 구분하는 점에서 마니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고, 로사스는 암흑의 도시를 창조해낸 ‘악의 조물주’이다. 그래서 그의 집은 어둡고 음침하게 묘사되며, 촌스럽고 단조로운 그의 생활은 아말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움, 화려함, 세련된 면모와 대조를 이룬다.

에체베리아, 사르미엔토, 마르몰의 작품은 낭만주의적 특징 외에도 문명-야만에 대한 공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 조직체계를 개인보다 상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도시를 문명의 본거지로 시골을 야만의 고유의 장소로 본다는 점에서 유럽 낭만주의자들과 차별화된다. 아르헨티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이 작가들은 야만을 인종적인 측면과 연관하여 판단하고 문명을 유럽의 산업화된 사회들의 성과물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 시기의 모든 문학이 유럽화된 측면과 아메리카적인 측면으로 이분화되지는 않았지만, 인디오들은 여전히 미지의 낯선 이들이었으며, 그들은 과학의 발달로 서서히 소멸당하는 희생자들로 인식되어 졌다. 인디오들의 관습이나 민속은 이제 단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잠재된 시간으로 자리를 하게 된 것이다.

같은시기이지만 루시오 만실야 Lucio Mansilla (1831-1913)와 가우초 문학을 대표하는 호세 에르난데스 José Hernández (1806-1907)는 위에서 언급된 세 작가와는 다른 작품의 경향에 관심을 갖았다. 이들은 작품 『인디오 란켈 부족으로의 여행』 *Una excursión a los indios ranqueles*(1870)과 『엘 가우초 마르틴 휘에로』 *El gaucho Martín Fierro*(1872)을 통해 문명보다는 자연, 유럽보다는 아메리카, 백인 보다는 인디오를 예찬하였다. 만실야는 붉은 피부를 가진 이들을 이상화하진 않지만, 그들이 지닌 미덕에 감명을 받아 사르미엔토와는 다른 시각으로 문명을 바라보고 있다. 사르미엔토가 인디오사회에 문명과 발전을 도입하고자 했다면 만실야는 발전을 윤리적인 견지에서 바라보았다. 만실야는 그들의 생활에서 다가오는 거부감을 극복하고 일치감을 갖는 태도가 야

만에 대한 문명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기독교 정신의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여겼다.

에르난데스는 18세기 말부터 라 플라따강 유역의 팜파스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gaucho족들의 삶을 노래하였다. gaucho족들은 메스티조로써 그들의 생활에는 스페인적 요소와 인디오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었고, 그들은 자유를 존중하며 사회와의 관계를 거부하고 '팜파스의 법'에만 복종하며 유랑생활을 하였다. 1810년 이전까지만 해도 방랑자나 밀수꾼으로 취급당하다가, 1810년에서 1852년 사이에는 gaucho들이 조국을 위해 독립전쟁에 참가하여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1852년 이후 새로운 국가가 탄생되면서 이들의 마을은 도시로 흡수되어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 gaucho의 운명은 인디오와 마찬가지로 비극적이었다. 서구 사회가 극복한 사회 단계에서처럼 그들의 유랑 생활은 대농장들의 설립과 통조림 및 육류 수출의 산업 기반의 확립으로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었다. 호세 에르난데스의 시 「엘 gaucho 마르틴 휘에로」는 gaucho 소멸 시기의 그들의 삶을 포착하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의 고립된 현상을 묘사하기보다는 gaucho 문학의 전통과 그 기원 그리고 인디오적, 스페인적, 심지어 흑인적 요소가 혼합된 팜파스의 문화를 다루고 있다.<sup>3)</sup>

gaucho족의 전통을 기술하기 시작한 사람은 우루과이 시인 바로톨로메 이달고 Bartolomé Hidalgo (1788-1822)이다. 그는 gaucho 방언과 대중시의 리듬을 사용하여 일종의 정치적 풍자시를 집필하였다. 이달고의 대표적인 작품은 '사랑스런 사람, 사랑스런 내 님 시엘리또 시엘리또'로 합창이 삽입되는 '시엘리또'의 형식과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달고외에도 일라리오 아스까수비 Hilario Ascasubi, 아니세또 엘 갈요 Aniceto el Gallo 그리고 에스파냐슬라오 Estanislao del Campo를 들수 있는데, 이들의 작품은 점점 풍자적으로 바뀌어 갔다. 특히 아스까수비는 로사스에 정권에 대항하여 정치와 사회를 비판하는 신랄한 풍자시를 집

3) Sara Sefchovich, *México: País de Ideas, País de Novelas*, Grijalbo, México, 1987, pp. 214-243.

필하였다.

가우초 문학이 가우초의 감정을 본격적으로 표현하는 시기는 우루과이 출신인 안토니오 루시치 Antinio Lussich(1848-1928)가 활동하던 시기에 잘 나타난다. 그는 『마르틴 휘에로』보다 조금 앞선 1870년에 『세 우루과이인 가우초들』 *Tres gauchos orientales*를 발표하였다. 이 작품에서 가우초는 그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치 투쟁의 단순한 대변자라기보다는 그들의 언어, 감정, 풍습을 중요시하는 전통문화의 계승자로 묘사되고 있다. 에르난데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우초 삶의 본질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자 했고, '악한 가우초'의 전통적인 주제를 보편적이고 비극적인 전형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에르난데스는 유년시절을 시골에서 보내며 가우초처럼 성장하였다. 군복무를 마치고 의회 기자로 일하게 되면서 전체주의자들에 대항해 연방주의에 동조하여 잠시동안 브라질에서 거주하기도 하였다. 그는 반정부 활동을 통해 억압받는 가우초들을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습관, 그리고 그들의 내력을 잘 이해하였기 때문에 도시에 의해 억압받은 평원의 지도자처럼 평가받기도 하였다. 그의 작품은 20세기에 들어와 우나무노, 루고네스, 보르헤스, 사르미엔토, 에체베리아와 같은 유능한 작가들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의 많은 다른 저자들처럼 유럽이 이미 설정해 놓은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 식민화된 상상력들이 발견된다.

낭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민족 문화의 모색은 불가피하게도 작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낙후성으로 인한 저개발국의 모순들과 맞닥뜨려만 했다. 근대적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인간을 거부하고 자연을 지배하려 하는 것을 의미하였지만, 산업화 과정에 속해있던 유럽 낭만주의와는 반대로 중남미에서는 저개발을 강조하는 형태로 표출되었다. 결국 이렇게 복합적인 중남미 낭만주의를 이해하려면 먼저 전통적인 심층 구조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남미에서 소설적 전통은 존재하지 않았고 작가들은 동시대 유럽에



서 많이 보급된 역사소설을 모방하는데 그쳤다. 역사 소설에는 민족적·국민적인 내용이 내포되어 있었는데, 이는 역사를 독립이란 새로운 조명에 비추어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작품이 대중들에게 국가 전통을 가르키는 교훈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 결과 관념적 동기로 씌어진 실험 소설이 나타났고, 때로는 역사를 풍자하는 작품들이 낭만주의적 플롯을 빌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디오 역사 소설 가운데서 가장 성공을 거둔 작품은 도미니카 출신 마누엘 Manuel Jesús Galvan(1834-1911)의 『엔리킬요』 *Enriquillo*(1882)이다. 이 작품은 동시대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서술한 역사소설로 비록 역경을 겪는 사랑이라는 진부한 스토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지만, 작가의 능숙한 재능으로 크고 작은 역사적 틀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비교적 낙관주의적 관점에서 작품을 이끌어가며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스페인 식민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른 낭만주의 작가와 마찬가지로 현실을 이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는 라틴아메리카 낭만주의 작품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미래를 향한 유토피아적 전망이라기보다 향수 어린 전통주의적 관점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의 이상화’라는 성향은 식민시대 역사 소설들에서 적지않게 적용되었다.

역사 소설은 특히 독립기에 유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시기적으로 생동감을 줄 수 있었고, 그 특징상 독립 운동은 국가적, 민족적 테마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꼬차밤바Cochabamba 마을의 영웅적인 투쟁을 묘사한 볼리비아 출신 나파니엘 아가레 Nataniel Agirre(1843-1888)의 작품 『환 데 라 로사』 *Juan de la Rosa*는 다른 작품과 달리 신대륙 발견 이전의 사회에서 결여된 긴박감과 현장성을 지니고 있고, 우루과이 소설가 에두아르도 아세베도 Eduardo Acevedo Diaz(1851-1921)는 초기에는 정복자들, 후기에는 브라질 점령에 대항한 우루과이인들의 투쟁에 대한 연작소설을 집필하였다. 후기 작품으로 식민시대에서 독립기까지 다루고 있는 『창과 칼』 *Lanza y sable*은 사르미엔토의 『화끈도』에서 처

럼 사적인 정부의 이름으로 민간 질서를 파괴했던 독재자 리베라 Fructuoso Rivera의 통치를 비판하고 있다. 디아스는 작품 전체를 통해 언어의 빈곤함을 느낄 수 있는데, 특히 인물이나 상황을 묘사하는 구체적인 표현에서 상투적인 형용사들과 색채감 없는 건조한 동사들이 표현의 위력을 저하시킨다.

문학에서 언어는 비판적 요소로서 진정한 창조와 평이한 모방을 명확하게 구별 지워 준다. 특히 역사소설에서의 진정한 독창성은 소설적 요소에서 자동적으로 유출되기보다는 구어체적인 언어의 발견을 통해 역사적 내러티브가 평이함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독창성을 계기로 새로운 전통을 창조한 작가는 페루 출신의 리카르도 빨마 Ricardo Palma (1833-1919)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4)</sup> 그는 두가지 문학적 전례 -풍속주의적 삽화와 중남미 문학에서 연속적으로 사용된 구전 서술의 기법-에 영감을 받아 과거 역사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풍속주의는 19세기 스페인에서 발전되었고 대중적, 서민적인 것들을 묘사하는 문학 양식이지만, 리카르도 빨마는 이러한 전례들을 수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문화와 역사적 자료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고문서를 통해 찾아낸 일화들과 사건들에 기초한 이전 시대의 역사적 계기에 몰두하였다. 1872년에 출간된 『페루의 전통』 *Tradiciones peruanas*은 12년동안의 결실로 역사의 교훈이 되고 민족 관념을 이해시키고자하는 의도로 집필하였다. 예술에 대한 그의 사고가 다르듯 그의 예술에 대한 평가 또한 19세기 라틴아메리카의 낭만주의 작가들 사이에서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 작가의 이러한 입장은 과거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다주었고, 후에 루벤 다리오와 같은 새로운 작가를 평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리카르도 빨마는 과거로부터 도덕적인 교훈을 끌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유약함을 통하여 섬세한 유머를 찾고자 과거를 관찰하였다. 그는 권위, 법, 사회적·종교적 규범

4) Osacar Sambrano Urdaneta, *Literatura Hispanoamericana I-II*, Monte Avila Editores Latinoamericana II, México, 1991, pp. 45-53.

들에 대항하여 창의력이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관심있게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엄격한 관습과 규범의 시대이면서, 그만큼 관습의 위반과 위선이 극도로 활기치던 식민시대를 선호하였다.

19세기 낭만주의 소설들의 제목들을 열거해 보면, 여성 주인공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에서 바르톨로메 미뜨레(1821-1906)의 『솔레달』 *Soledad*(1847), 미겔 까네(1812-1863)의 『에스테르』 *Esther*(1851), 호세 마르몰(1815-1871)의 『아말리아』 *Amalia*, 콜롬비아에서 호르헤 이삭스(1837-1895)의 『마리아』 *María*(1867), 에우헤니오 디아스(1804-1865)의 『마누엘라』 *Manuela*(1866), 멕시코에서 익그나시오 알파미라노(1834-1893)의 『클레멘시아』 *Clemencia*(1869), 쿠바에서 시릴로 비야베르테(1812-1894)의 『세실리아 발데스』 *Cecilia Valdés*(1892), 에쿠아도르에서 후안 레온 메라(1832-1894)의 『꾸만다』 *Cumandá*(1879)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소설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계급적 혹은 인종적 장벽에 의해 역경을 겪는 사랑에 대한 작품들이다. 작가들은 유럽의 낭만주의나 고전 작품의 주인공을 메스티소 마누엘라, 몰라토 세실리아 발데스, 유대인 처녀 마리아, 끄리올요 꾸만다 같은 새로운 여성형으로 해석하여 보여준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인 여주인공들의 비극적인 사랑을 묘사하며, 동시에 이러한 비극적인 사랑을 겪는 여주인공들을 통해 혹독한 역경을 겪는 민족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작품의 여주인공들은 현실의 원주민들과 동일한 입장이었으며, 기존과는 상반되는 여주인공들의 성향은 민족성을 수호하는 작가들의 뚜렷한 목적의식으로 라틴아메리카 낭만주의 소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자 주인공에 그치지 않고 남자 주인공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여자 주인공들이 유럽적 원형에서 탈피하듯이 남자 주인공들도 더 이상 유럽인들이 아니라 명백한 인디오 출신으로 유럽의 미남형보다 더 고상한 감정을 보여주는 못생기고 검은 아메리카의 남자 주인공들을 택하였다.<sup>5)</sup>

5) Jean Franco, *op. cit.*, pp. 105-108.

사랑을 주제로 19세기를 대표하는 소설들 가운데 『세실리아 발데스』를 분석해보면 인종 문제에 대한 작가의 입장이 더없이 갈등에 처해있음을 짐작할수 있다. 이 소설의 작가 시릴로 비야베르데 Cirilo Villaverde는 진보적인 인물로, 1848년에 미나 데 로사 꾸바나 Mina de Rosa Cubana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1849년에 도미하여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다. 작품 『세실리아 발데스』는 여주인공이 이복오빠를 사랑하게 되면서 겪는 진부한 낭만주의적 플롯을 지니고 있다. 여주인공의 사랑과 복수 그리고 죽음, 이 모든 것들은 낭만주의적 플롯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요소들로 작품의 평이함을 시사하지만, 이 소설이 이러한 관습적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작품이 제시하는 인종적 문제들이다. 세실리아는 스페인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몰라또이며, 이복 오빠와의 사랑 이야기는 작가의 무의식적인 타부를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작가는 형평에 어긋나는 다른 인종간의 사랑은 반드시 비극적이라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많은 작품이 그러했듯이 식민 사회에서 인종과 연류된 모든 문제는 실패나 비극적 결말로 종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실리아 발데스』는 인종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두 대조적인 사회, 생동감이 가득한 흑인 사회와 쇠락해가는 백인 사회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20년대의 아프로쿠바니즘을 앞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작가는 서민 계층의 춤과 흑인 음악속에 아바나인들의 진정한 삶이 내포되어 살아 숨쉬고 있다고 보았다.

인종 문제를 다룬 『세실리아 발데스』와는 달리 에파도르 출신인 환례온 Juan León Mera (1832-1894)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 『꾸만다』를 통해 가르시아 모레노의 독재 기간 동안 끼또의 청교도적 분위기를 기술하고 있다. 메리는 샤토브리앙의 영향을 받아 것처럼 카톨릭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관심을 갖고, 정치가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낭만주의의 보수적인 흐름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그의 소설에서는 더 이상 인디오투를 선한 야만인으로 보지 않는다. 스페인 혈통을 지닌 꾸만다를 제외한 다

른 인디오 부족들은 잔인하고 무식하며, 보복을 즐기는 부족으로 묘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화로 야기된 인디오들을 착취하는 제도에 관심을 갖고, 착취자들의 탐욕을 자제시키는 동시에 선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인디오들의 잔인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갈망하고 있다.

꾸만다는 야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출하지만, 꾸만다가 찾아 헤매는 문명은 에체베리아나 사르미엔토의 문명이 아니라 스페인 선교사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문명사회이다. 작가에게 자연이란 인간의 열정과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긍정도 부정도 아닌 밀림의 실제보다는 샤토브리앙의 자연 개념에 더 접근해있다.

20세기에 이르러서야 중남미 작품에서는 더 이상 밀림을 공포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주로 프랑스 낭만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환 레온이나 호르헤 이삭같은 작가들은 자연을 신의 섭리로 받아들여 이상적인 모델들을 자연 풍경에 투사하였다. 자연이 신의 계획에 따라 정돈되었다는 관점은 호르헤 이삭의 대표작인 『마리아』 *María*(1867)에 나타난 목가적 풍경에 잘 반영되어 있다. 호르헤 이삭 Jorge Issac(1837-1895)는 유대계 출신으로 당대의 다른 많은 낭만주의 작가들처럼 보수적이고 기독교적 흐름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소설을 집필하였다. 『마리아』는 안데스 산맥의 장엄한 파노라마가 내려다보이는 목가적인 풍경속에서 마리아와 에프라인의 사랑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여기서 자연은 하나의 정원이며 하나의 장식이다. 산, 바람, 강 등 자연의 모든 요소들은 조화를 이루고 있고, 인간들 또한 조화롭고 행복한 인생을 맞이한다. 모든 조화는 사회적 응집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처럼 대단히 가부장적인 지주 계급에 의지하고 있다. 지주는 법도 질서도 없는 외딴 영토에서 인종적인 조화의 보존을 위해 지시하고 가르키는데, 그의 이러한 이상은 선진들의 종교였던 유대교보다 윤리적·도덕적으로 우월한 기독교에서 비롯된다.

중남미 낭만주의 소설의 독창적인 외관 뒤에는 항상 전통적 가치들이

강화되듯, 마리아가 죽은 후 청년기의 열정들은 사라지고 책임 및 규율이 성숙한 덕목으로 대체된다. 인종간의 관계와 자연의 틀 속에서의 인간의 자리는 변화 없이 유지된다. 즉 자연계의 위계, 인종적 전형과 사회 계급의 정점에 백인인 기독교 지주가 자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안정성과 신분제적 가치에 대한 향수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이는 20세기초 로사스정권 하에서 농장주와 지주들이 근대성과 지식인들의 힘에 맞서 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19세기 말 유럽 이민 1세대 작가는 보다 전통적으로 아르헨티나적인 모든 것을 묘사하면서 지역에 대한 향수를 즐겨 표현하였다. 한 예로 기자이면서 정치가, 작가로 활약했던 곤살레스 Joaquín V. González(1863-1923)의 작품 『나의 산들』 *Mis Montañas*은 이러한 입장의 전형으로 손꼽힌다. 안데스 지방을 묘사한 이 작품은 어조상 『마리아』와 『꾸만다』만큼이나 낭만적인 산문으로 되어 있으며, 여러 면에서 사르미엔토의 산문과 매우 유사하다. 곤살레스에게 자연이란 무질서에서 발생하는 위협이 아니라 하나의 사원이며 성스러운 신적 조화의 반영물이다. 그에게 자연의 각 요소는 각자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해독할 수 없는 것도 전체의 조화 내에서, 즉 창조와 신전내에서 그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환 레온이나 호르헤 이삭처럼 작가는 다루기 어려운 자연을 토대로 그 체제 내에서 그의 세계를 체계화하였다. 구피에레스의 이상은 기독교적 원시 공동체로의 회귀이고, 이 공동체의 토대가 이미 자치구 내에 존재한다고 믿었다. 카톨릭교가 다시 한번 다른 인종, 민족, 종족들 간의 밀접한 연결 고리를 형성하고 인간 삶에 존엄성을 부여할 역할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중남미 낭만주의 소설은 총체적으로 독창적인 테마들을 고취하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성격을 띤 낭만주의적 감흥의 자연을 보여주고 있다.

낭만주의는 실제에서 보다 이론상에서 보다 혁명적이었으며, 산문에서 만큼이나 시에서도 매우 중요하였다. 에체베리아는 ‘낭만주의는 삶의 피

상적 측면들 아래로 파고 든다'라고 언급하였다. 시인들은 테마의 독창성을 찾고자 노력했고, 바이런이나 빅토르 위고의 태도를 중남미의 텍스트 상에 옮겨놓고자 노력하였다. 산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독수리를 콘돌로, 알프스 산맥을 안데스 산맥으로, 유럽의 폭포를 나이가가라나 떼겐다마폭포 등으로 대치하며 독창적인 테마를 제공하였다.<sup>6)</sup>

모데르니스모 이전까지 중남미 시는 상상의 산문처럼 교훈적인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국가적, 민족적 테마에 대한 긴 시들이 자주 씌어졌다.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작가와 작품으로 우루과이 출신인 호세 소리아 José Zorrilla de San Martín (1855-1931)의 『따바레』 *Tabaré*, 콜롬비아 출신인 홀리오 아르볼레다 Julio Arboleda (1817-1861)의 『곤살로 데 오이온』 *Gonzalo de Oyón* 등이 있다.

우루과이 작가 호세 소리아의 작품 『따바레』 *Tabaré*(1886)는 정복 이후 우루과이에서 사라진 차루아 부족의 역사를 내루다가 그의 작품 『마추삐추의 고도』 *Alturas de Macchu Picchu*에서 잉카인들에 했던 것처럼 작품 속에서 그들의 자리를 되돌려 준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작가는 기독교의 중재를 통해서만이 이런 종족들이 소멸로부터 구원될 수 있다고 믿었고, 스페인 정복과 대륙으로의 카톨릭 신앙 이식을 정당화하였다.

아르헨티나 출신인 올레가리오 안드라데 Olegario Andreade (1839-1882)의 작품 『콘도르의 둥지』 *El nido de condors*는 산 마르틴이 어떻게 안데스 산맥을 횡단했는가를 묘사하는 애국시로, 콘돌과 안데스 산맥의 숭고한 봉우리는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곳으로 인간이 갈망하는 자유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다. 안드라데의 시는 올메도 시와 동일한 전통 즉 죽음, 영광, 영웅적 행동들을 노래한 시기동안 국가적 영웅들을 찬양하고자 하는 영웅시에서 유래되었다.

영웅적인 테마나 애국적인 전설이 아닌 다른 주제들에 대한 내용의 작품들도 많이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안드레스 벨요의 『농

6) *Ibid.*, pp. 118-119.

업의 찬가』 *Oda de agricultura*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다른 전통 즉 아메리카의 가축과 수확에 대한 번영을 노래하는 전통에서 비롯되었고, 콜롬비아 시인 그레고리오 구띠에레스 Gregorio Gutierrez Gonzalez (1826-1872)의 『안띠오끼아에서 옥수수 재배의 추억』 *Memorias sobre el cultivo del maíz en Antioquia*(1866)은 토지의 개간 및 과정에서부터 수확까지 옥수수 재배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삭 호아킨 Isaacs Joaquín V. González은 땅과 직접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조화롭고 평화스런 삶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특히 작품의 행 중간에 나타나는 휴지와 11음절의 규칙적인 반복 그리고 일상적인 용어의 활용은 항상 되풀이되는 언행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기독교적 공동체의 기초인 질서가 확립된 가정생활의 느낌을 자아낸다.

서정시에서도 애국시와 호세 호아킨 데 페사도 Joaquin de Pesado (1801-1861)의 『네사왈코조들의 노래』 *Cantos de Netzahualcoyotl*처럼 인디오와 관련된 시 그리고 호세 하신또 밀라네스 José Jacinto Milanés(1814-1863)의 『망고 밑』 *Bajo el mango*처럼 들과 마을의 풍경을 노래한 목가시, 연애시가 존재하였다.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중남미 시와 산문은 중남미 작가들에게 있어서 '질서'가 '자유'보다, '전통'이 '혁신'보다, '권위'가 '주관성'보다 더 중요하게 나타난다. 소설가들과 시인들은 무정부적인 사회 내에 질서, 고요, 평안의 오아시스를 만들고자 하였고, 혁명보다는 보수, 보존에 대해 보다 더 숙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질서에서 탈피하는 모험을 했고, 새로운 심오함 들을 직관한 호세 마르띠나 루벤 다리 오같은 작가들의 혁명적인 성격과 모더니즘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Textos

Issacs, Jorge, *María*, Medellín, 1966.

Palma Ricardo, *Tradiciones peruanans completas*, Madrid, 1964

Villaverde, Cirilo, *Cecilia Valdés*, La Habana, 1954

### Estudios históricos y críticos

Bagnouls, Lourdes Franco, *Literatura Hispanoamericana*, Noriega Editores, UNAM, México, 1995.

Carrilla, E., *El romanticismo en la América hispánica*, Edición Revisada, 2 vols., Madrid, 1967.

Franco. Jean, *Historia de la Literatura Hispanoamericana*, Editorial Ariel, Barcelona, 1981.

Marguerite C. Suárez-Murias, *La novela romántica en Hispanoamérica*, Nueva York, 1964.

Sefchovich, Sara, *México: País de Ideas, País de Novelas*, Grijalbo, México, 1987.

Urdaneta, Osacar Sambrano, *Literatura Hispanoamericana I-II*, Monte Avila Editores Latinoamericana. México. 1991.

**【Resumen del Contexto】****Civilización y Barbarie en el romanticismo de la literatura  
hispanoamérica del siglo diecinueve**

Kim Chung

El romanticismo llegó a Latinoamérica, en una forma diluida, a través de la influencia española y francesa. Mucho después de que en Europa se hubieran ganado y perdido una serie de batallas, cuando el realismo era ya la nueva vanguardia, los hispanoamericanos seguían empeñados en librar oscuros combates estéticos y todavía consideraban al romanticismo como el movimiento moderno por excelencia.

Quizas por esa razón el romanticismo, que en Europa respondía a un proceso de industrialización, en Latinoamérica subrayaba irónicamente el subdesarrollo. Así, las obras de la región del Río de la Plata especialmente se encuentra el tema de los grandes espacios naturales del río y de la pampa. Los escritores de esta zona se sienten perdidos en el espacio geográfico de la tierra que los circunda, perdidos entre gentes extrañas, los extraños gauchos, los indios salvajes o los negros y mulatos de la costa, perdidos en un vacío cultrural, enfrentándose con la perspectiva de crear una cultura sin ninguna tradición que les guíe.

Al contrario de la idea mencionada habían escritores como Juan León Mera, Jorge Isaacs que consideraban la naturaleza como un reflejo de la divina providencia, proyectando en el paisaje modelos ideales. La visión de una naturaleza ordenada según el designio

divino se refleja en los paisajes idílicos de María, novela en la que se advierte la influencia de los románticos franceses.

Aunque no había un público masivo, algunas de las obras románticas más sentimentales calaron hondo en la sensibilidad popular. La sensibilidad romántica convirtió en sentimentalismo. Y la literatura quedó vinculada con la expresión de los sentimientos. Contra este hecho la vanguardia de los años veinte iba a reaccionar con gran vehemencia.